

# 송국리형취락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

이 종 철  
전북대학교박물관

〈 목 차 〉

I. 머리말	III. 송국리형주거와 생산·소비
II. 송국리형주거의 주요시설 검토	1. 생산
1. 타원형구덩이	2. 소비
2. 중심기둥	IV. 송국리형취락과 생산·소비
3. 유인수로	1. 생산
4. 내부시설과 유형분류 검토	2. 소비
	V. 맺음말

## I. 머리말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는 일차적으로 자료의 부족과 해석의 한계로 말미암아 고대사회의 그것과 비교할 때 공허한 결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7회 청동기학회 학술대회는 유물과 유구를 통해 청동기시대 전기와 후기(또는 중기) 단계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자리라고 생각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토기와 석기를 중심으로 하는 유물과, 취락과 생산지를 바탕으로 하는 유구로 대별하여 진행된다. 본 글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형이자 편년단위인 송국리형문화를 대상으로 하며, 이 단계의 취락과 유구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송국리형문화는 1974년 부여 송국리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문화유형으로서, 우리나라 고고학 편년상 청동기시대 중기(또는 후기)의 문화단계이다. 송국리형문화는 송국리형주거지, 송국리형가마, 송국리형토기, 송국리형옹관, 플라스크형 적색마연토기, 삼각형석도, 소형 마제석검, 유구석부, 소형 숫돌 등의 물질문화를 표지로 하는 문화유형으로 정의된다<sup>1)</sup>. 이 외에도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된 요령식동검은 송국리형문화와 요령식동검문

회와의 관련성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석관묘와 석개토광묘는 지식묘와 함께 송국리형문화의 묘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취락에서의 생산과 소비는 넓은 의미에서 논, 밭과 같은 경작지가 마련된 생산영역과 공동소비를 하는 광장에서 의례 또는 취사행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취락을 구성하는 개별 주거 내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단위영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거 내 노지는 소비영역, 작업장은 생산영역이 될 것이다. 이렇듯 광의 영역과 협의 영역에서의 생산과 소비는 개별 주거와 취락 내에서의 경제체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필자는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취락을 통해 청동기시대 후기(또는 중기)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물론 실증적 검증이나 논리 전개에 한계와 비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유적에 남아 있는 고고학자료가 100%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나, 직관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하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혹은 ‘문제가 있는’ 논지전개로 평가되기보다는 새롭고 체계적인 또 다른 해석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II. 송국리형주거의 주요시설 검토

그 동안 조사에서 밝혀진 송국리형주거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①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의 원형계와 방형, 장방형, 말각방형의 방형계로 구분된다.
- ② 내부시설은 타원형구덩이, 중심기둥(주공), 유인수로, 벽구, 내벽기둥(주공), 외벽기둥(주공), 4주, 저장구덩이, 출입구로 구분된다.
- ③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은 송국리형주거에서 가장 상징성이 높은 요소로 볼 수 있다.
- ④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으로 조합되는 기본 구조, 4주가 설치되는 4주 구조, 복수의 타원형구덩이·4주·보강주로 조합되는 복합 구조로 세분할 수 있다.
- ⑤ 기본 구조와 4주 구조에서는 개축이, 복합 구조에서는 증축이 확인된다.

1) 이견무, 2006, 『松菊里類型에 대하여』, 『금강, 송국리형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서·호남고고학회합동 학술대회, pp.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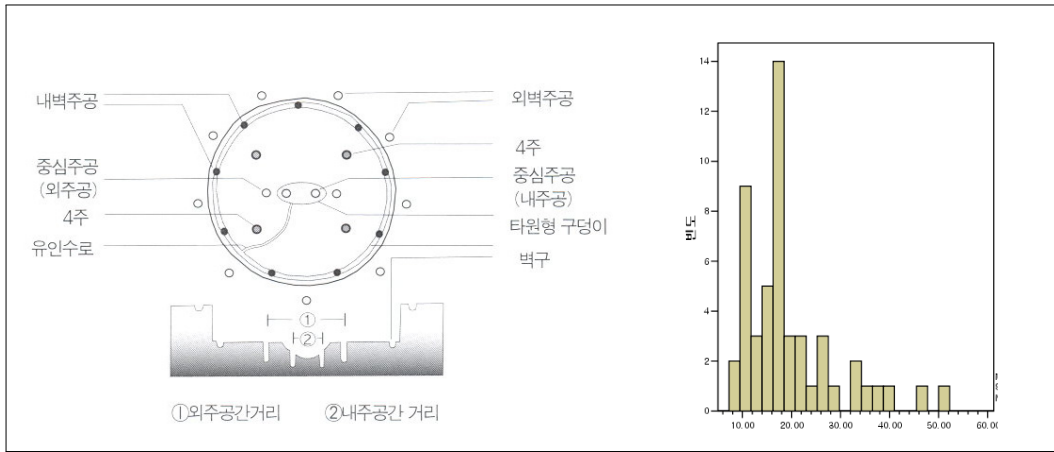


그림 1. 송국리형주거 내부시설 세부 명칭 및 면적 분포 일례

### 1. 타원형구덩이

송국리형주거에서 타원형구덩이는 타원형, 장타원형, 원형의 모습을 이루며, 고유한 전통성·보편성·계승성·기능성을 갖는다. 그 동안 타원형구덩이에 대해서는 작업공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지만, 필자는 예전과 같이 보관구덩이로 해석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다량의 석재와 석기가 구덩이 내부에 존재한다.
- ② 외반구연호와 심발 같은 완형의 토기가 내부에 보관되어 있다.
- ③ 일반적인 크기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건물의 규모, 중심기둥과의 조합에서 길어지는 경향을 갖는다.
- ④ 주거 내부로 유입되는 빗물 등을 유인수로 통해 집수하는 기능을 수반한다.
- ⑤ 소수에 불과하지만, 타원형구덩이는 노지로 변용되어 불씨를 보관하는 기능을 한다.
- ⑥ 거의 대부분의 타원형구덩이는 비어 있는 채로 조사된다.
- ⑦ 개별 주거 내에서 생산과 소비단위의 표상이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타원형구덩이는 온전한 현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함축하고 있어 조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 ①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다가 주민의 이거로 인해 이주 전까지 남겨진 마지막 생활 흔적
- ② 이거 과정에서 생활용품이 이미 선택적으로 걸러진 이후 남겨진 흔적
- ③ 이거 후 교란과 2차 훼손(흔입)에 의한 흔적

## 2. 중심기둥

송국리형주거에서 중심기둥은 일반적으로 2개로 구성되며, 타원형구덩이와의 조합을 통해 기둥간 거리가 결정된다. 중심기둥은 타원형구덩이와 같이 고유한 전통성·보편성·계승성·기능성을 갖는다. 그 동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중심기둥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바닥 중앙에 2개의 중심기둥이 자리하며, 도리를 지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일반적으로 타원형구덩이 안과 밖의 양측에 자리하며, 타원형구덩이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 ③ 많은 수는 아니지만 타원형구덩이 내부 양측(내주공)과 외부 양측(외주공)에 일렬로 4개의 중심기둥이 자리하기도 한다. 이는 도리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④ 내주공식과 외주공식이 완전한 독립성을 갖추는 과정에서 2개의 내주공(안 기둥)과 1개의 외주공(바깥 기둥) 또는 1개의 내주공과 2개의 외주공이 설치되기도 한다.
- ⑤ 개별 주거 내에서 생산과 소비단위의 표상이다.

## 3. 유인수로

유인수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빗물 등을 바닥의 중앙에 위치하는 타원형구덩이로 유인하는 기능을 한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인수로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적으로 벽면과 타원형구덩이를 연결한다.
- ② 대부분 벽구와 함께 설치된다.
- ③ 주거 바닥을 4분, 3분, 2분하여 부차적으로 공간을 분할하기도 한다.
- ④ 평지를 제외하면 경사면에서는 대부분 높은 쪽에 벽구와 함께 유인수로가 마련된다.

## 4. 내부시설과 유형분류 검토

송국리형주거는 건축적 측면에서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의 합체, 분리, 소멸(생략), 그리고 복합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축조되고 폐기되어 왔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유형분류가 시도되어 왔는데, 필자는 [그림1~3]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합체는 건물의 상부구조를 지탱하는 중심기둥이 타원형구덩이 내부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A형)에서 연유한다.

분리는 중심기둥이 타원형구덩이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C형)서 연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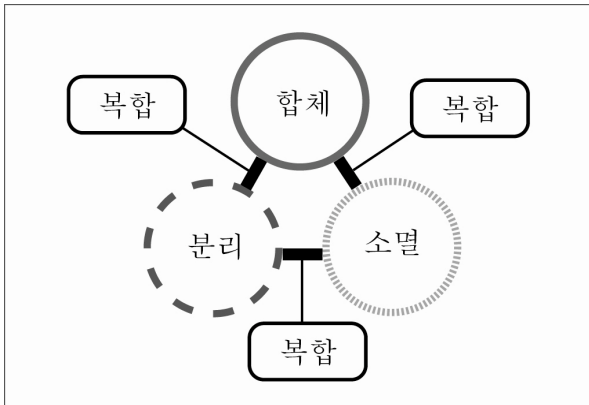


그림 2. 송국리형주거 축조 기본틀(이종철 2006 수정)

분류	A	B	C	D	E
①					
②					

그림 3. 송국리형주거 유형분류(이종철 2000 수정)

소멸(또는 생략)은 필수요소로 기능하던 중심기둥과 타원형구덩이 중 한 요소가 소멸(생략)하면서 상부구조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바닥면 활용에 변화를 주는 것(D·E형)에서 연유한다.

복합은 2개 이상의 요소가 서로 조합하여 복합적인 구조를 이루는 것(복합구조)에서 연유한다.

[그림3]의 주거 분류는 과거 필자의 분류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평면 형태는 방형계와 원형계의 중립성을 위하여 말각방형으로 표현하였다. 또 타원형구덩이가 사라지고 중심기둥만을 갖는 주거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D형과 E형은 소멸(또는 생략)의 범주에 속하는 유형으로 하나의 단위로 간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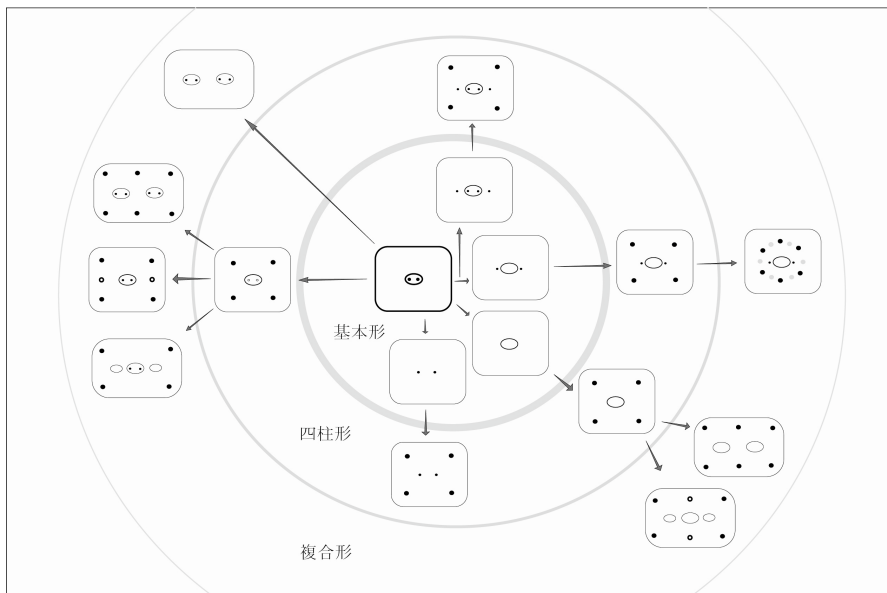


그림 4. 송국리형주거의 구조 변화(이종철 2006 수정)

송국리형주거는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주거의 구조는 기본 구조, 4주 구조, 복합 구조로 구분된다. 기본 구조는 A형~E형으로 이루어진 주거로, 송국리형주거의 기본 단위를 이룬다. 특히 이들 5가지 유형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구조는 A형이라고 할 수 있다. 4주 구조는 기본 구조에 4개의 기둥이 설치되는 주거로, 규모의 확대와 건축기술의 발전을 보여준다. 복합 구조는 2개 이상의 요소가 서로 조합을 이루어 건물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복수의 생산과 소비단위를 이루는 주거라고 할 수 있다.

### Ⅲ. 송국리형주거와 생산·소비

#### 1. 생산

송국리형주거 내부에 존재하는 생산 영역은 타원형구덩이가 대표적인 것이다. 생산이라는 개념 속에서 타원형구덩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① 지석, 연석, 미완성석기, 다양한 석기제품 등이 일부 타원형구덩이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어 석기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② 모든 타원형구덩이에서 석기 제작과 관련된 행위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생산과 관련된 절대적 요소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송국리형주거지를 조사하다 보면 바닥면에 집석과 같은 다량의 석재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대부분 10~20cm 크기의 돌무지 속에는 무문토기편과 석기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 ① 송국리형주거가 석기제작을 위한 작업공간으로 활용되었다면 석기 제작용 예비 석재라는 추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석재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한 것들이 더 많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 ② 풍수해로 인한 지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붕 위에 올려 놓는 보강석(?)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크기가 작은 것들이 많고, 바닥 전체로 낙석된 것이 아니라 한 쪽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 ③ 주거의 폐기 이후에 쌓여진 어떤 행위의 결과물로 추정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집의 폐기를 취락민들에게 알리는 모종의 폐기 의례, 즉 죽은 자의 장송의례 시 유물의

파쇄행위가 무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 2. 소비

송국리형주거 내에서 소비와 관련되는 부분은 노지로 변용된 타원형구덩이, 바닥 중심부에서 어느 정도 치우쳐 형성되는 소토 영역, 그리고 저장공 등으로 볼 수 있다. 노지화된 타원형구덩이와 소토 영역은 모두 불과 관련되는 장소로서 화기를 활용한 소비 영역으로 추정되며, 저장공은 소비를 위한 저장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1) 노지화된 타원형구덩이

노지로 변용되는 타원형구덩이는 일반적으로 D형 주거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A·B·C형 주거에서 중심기둥이 소멸 또는 제거되는 주거 형태이다. 이 주거는 중심기둥이 사라지면서 전통적으로 설치되던 타원형구덩이가 노지로 변용되는 사례인데, 송국리형주거 전체비율로 볼 때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형태의 타원형구덩이는 다음과 같은 소비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① 타원형의 오목한 토광형 노지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 ② 오랜 시간 동안 화기를 활용한 행위가 이루어졌다.
- ③ 노지를 중심으로 주거민은 하나의 소비 단위(집단)를 이루며, 동일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가족)을 갖는다.
- ④ 주거의 평면이 방형이든 원형이든 중앙부의 노지가 구심점이 되어 주거민의 동선에 영향을 준다.

### 2) 주거면의 소토부

취락 내에서는 각각의 주거유형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 ① A·B·C형 주거에서 볼 수 있는 타원형구덩이는 소비영역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석기를 생산해내는 장소이자 일상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하던 곳으로 볼 때 생산과 보관을 위한 기본 장소로 볼 수 있겠다.
- ② 그럼 이들의 소비 영역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바닥 한 쪽에 마련된 불맞은 흔적(소토)은 노지와도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겠다<sup>2)</sup>.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이 조합된

2) 사례 : 서천 봉선리 1호, 진안 여의곡 B-3호 등 다수

주거에서 적지 않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일시적 혹은 일정한 소비영역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 독립적인 영역은 바닥 전체를 불다짐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형성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이러한 소토마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절의 변화와 기온차에 의한 화기 사용 및 화식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노지나 화로<sup>3)</sup>는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내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을 굳이 내부에서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지의 원주민들 모습처럼) 큰 화력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조리는 주거 밖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 저장공

소비와 관련하여 저장공은 부차적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소비용 자재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관할 것인가는 주거민의 생계와 안정을 보장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저장공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① 중앙부에 존재하는 중심기둥과 타원형구덩이를 피해 벽가에 3~4개 정도의 구덩이를 마련한다 : 청양 분향리, 서천 오석리, 익산 부평
- ② 저장공은 모든 유적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③ 역으로 소수 집단에서는 저장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면 다른 대부분의 집단에서는 저장공과 같은 성격의 다른 시설, 즉 굴립주건물과 같은 형태의 저장용 창고나 주거지 근처에서 함께 조사되는 수혈유구를 이러한 기능으로 활용하였다고 추정된다.
- ④ 저장공이 발견되는 주거지 가운데 타원형구덩이나 중심기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본디 저장시설로 건물을 지었거나 저장공을 보유한 주거지였다가 전용저장 시설로 전환되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 부안 장산리, 전주 효자5지구

### 4) 유인수로의 공간 분할

이들 외에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라도 소비에 따른 주거 내부에서의 공간적 분할이 있을 수 있겠다. 즉, 연장자와 연소자의 공간, 남녀의 공간, 祖-父-子-孫의 공간 등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한정된 공간을 나눌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거 내부에 어떤 실마리가 존재한다면 참고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적합한 시설이 유인수로라고 판단된다.

3) 서천 봉선리3-III-4호 주거지 타원형구덩이 내부에서 기고 30cm 크기의 송국리형토기가 직치된 상태로 출토되었고, 돌이 옆면에 돌려져 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 화로로 추정되지만 분명하지 않다.



유인수로는 바닥으로 흘러드는 빗물 등을 중앙으로 모아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주거 내부공간을 분할해야만 하는 인식이 존재했다면, 세대에서 공유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출입구 위치와도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방사상으로 구획된 주거 공간은 암묵적으로 가족 내 위계 혹은 공간 사용을 반영하는 근거 요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sup>4)</sup> 물론 송국리형주거의 특성이 가족 분화형 주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거 내에서의 엄격한 공간 사용체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가능성만을 열어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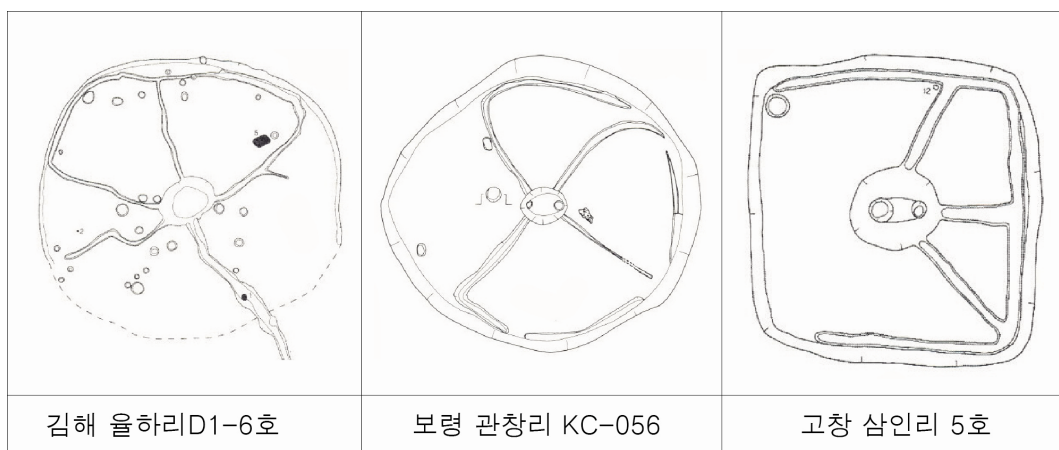


그림 5. 송국리형주거에 시설된 유인수로

## IV. 송국리형취락과 생산·소비

### 1. 생산

생산은 인간의 노동을 자연에 가해서 그것을 변형시키는 과정으로, 생산에는 작업도구·기술·자원과 같은 물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존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동생산물은 사회적 연계망을 통해 유통되며 집단에 의해 또는 집단 내에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 받게 된다<sup>5)</sup>.

4) 광주 산정19호, 영광 군동 B-5호, 해남 분토리 8호 등

5) 로저키징 著·전경수 譯, 1990, 『現代文化人類學』, 현음사, p.232.

송국리형취락<sup>6)</sup>은 논이나 밭, 석도, 탄화곡물, 볏씨자국 토기 등을 통하여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송국리형문화 단계에는 취락의 영역 구분이 체계화되면서 주거영역, 매장영역, 생산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진안 여의곡 취락은 송국리형주거가 분포하는 구릉의 주거영역, 밭으로 경작된 충적지의 생산영역, 동일 충적지에 조성된 지석묘군인 매장영역이 정연하게 구분되어 형성된 호남 동부 산악지대의 거점취락으로 평가된다. 특히 방형과 원형으로 이루어진 지석묘군의 위계체제와 사회조직<sup>7)</sup>, 지석묘 축조를 위한 시스템과 장송의례<sup>8)</sup>, 그리고 3천여 평이 넘는 전작지에서의 생산력은 청동기시대 복합사회로서의 여의곡 취락을 이해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진주 대평리 일원의 취락, 논산 마전 취락 등도 진안 여의곡 취락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장흥 신평과 갈두 취락은 생산영역인 경작지가 확인되지 않아 최소한 주거영역과 매장영역으로 구성된 취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송국리형문화 단계에는 생산영역으로서의 경작지가 생계체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잠정적 존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취락 내에서 경제체제의 운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장흥 신평과 갈두 유적에서 중형 주거의 대두<sup>9)</sup>, 중서부 지역에서의 주거 면적에 따른 위계체제와 취락의 유형<sup>10)</sup>, 주거지의 크기와 농경의 집약화 정도<sup>11)</sup> 등으로 볼 때 주거 규모에 따른 구성원의 성격과 생산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가족 형태로 분화된 송국리형주거를 통해 송국리형문화 단계는 소집단적 혹은 노동 집약적 생계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었지 않았나 추정된다.

6) 필자는 송국리형취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좀 더 정치한 개념으로 구축해갈 것이다.

송국리형취락은 3동 이상의 송국리형주거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중기 단계의 취락으로서 송국리형문화를 대표한다. 방형과 원형의 평면형태만이 아닌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으로 조합되는 독특한 건축기술로 이루어진 주거군은 취락 내에서 환상열이나 중횡열로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3~5동의 주거가 하나의 군을 이루면서 다른 주거군과 집합체를 이룬다. 이 취락은 주거영역, 생산영역, 매장영역 등 공간의 영역화를 공고히 했으며, 취락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거점취락, 특수취락, 일반취락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7) 金承玉, 2004, 「龍潭댐 無文土器時代 文化的 社會組織과 變遷過程」, 『湖南考古學報』 19, 湖南考古學會.

8) 李宗哲, 2003, 「支石墓 上石 運搬에 대한 試論」, 『韓國考古學報』 50輯, 韓國考古學會.

9) 이종철, 2012, 「탐진강 유역 송국리형주거의 특징과 편년」, 『湖南考古學會』 42號.

10) 安在皓,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第43號.

11) 高일홍, 2010,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방식 재조명」, 『韓國上古史學報』 第67號, p.41.

### 1) 경작지

송국리형취락 내에서의 생산은 논과 밭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러한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회라는 점에서 생산경제체제의 비중을 살필 수 있다.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경작지는 논과 밭으로 구분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sup>12)</sup>.

#### ① 논

- 입지 : 구릉 사면 말단부, 곡간평지(개석곡저), 충적지의 배후습지
- 형태 : 계단식, 소구획식
- 유적 : 울산 옥현, 논산 마전, 부여 구봉리, 보령 관창리 등

#### ② 밭

- 입지 : 구릉정상부, 곡간평지(개석곡저), 충적지의 자연제방
- 형태 : 이랑식, 소구획식, 소형수혈식
- 유적 : 진안 여의곡, 진주 대평리, 진주 평거3·4지구, 밀양 살내, 마산 진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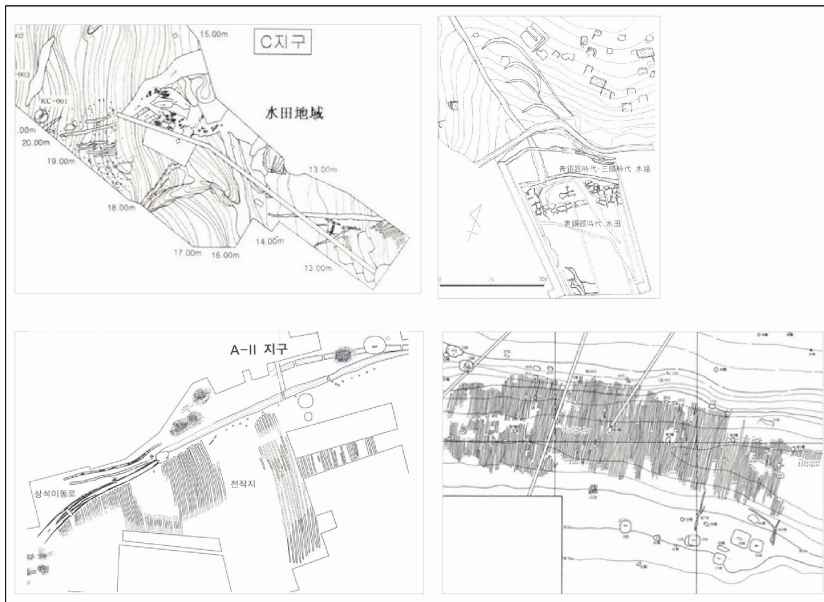


그림 6.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논과 밭(논산 마전·울산 옥편·진안 여의곡·진주 대평리 옥방2,3지구)

경작지의 존재는 취락 구성원으로 하여금 다양한 농경도구의 제작과 잉여생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창고 등)을 마련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지형과 지질, 수확

12) 윤호필, 2012, 「경작유구를 통해 본 경지이용방식의 변천 연구」, 『농업의 고고학』, 제36회 한국 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p.54.

하고자 하는 곡물의 성격과 경작 방식 등은 목제·석제 농경구의 다양한 생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특히 논과 밭의 규모는 취락 구성원의 노동형태와 생산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본다.

논은 계단식이나 구획에 의해 형성된 일정 규모의 형태인 반면, 밭은 소구획된 것도 존재하지만 이랑과 고랑으로 이루어진 대단위 면적의 것이 다수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방식에 대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① 집약적 공동경작에 의한 것인가?

: 집약적 공동생산→공동분배→개별소비

② 보여지는 것은 공동의 결과물이나 분업이나 개별소유에 따른 개별경작에 의한 것인가?

: 공동영역(경작지) 내에서의 집약적 개별생산→개별수확→개별소비

## 2) 가마[窯址] : 토기 생산

아직까지 일반화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송국리 유적에서 조사된 가마는 송국리유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마는 토기를 굽는 주요 시설로서 생산과 유통 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소결화된 토양과 다량의 토기편 등이 존재한다고 해서 토기를 생산했던 가마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①소결상태나 표면상태가 불량한 토기가 많거나 유구의 바닥과 벽이 소결되었고 매몰토에 다량의 숯과 소점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sup>13)</sup>. 또한 ② 소성과열토기편을 비롯한 토기소성 실패품과 토기소성잔재가 확인<sup>14)</sup>되어야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토기 가마는 부여 송국리, 논산 원북리, 서천 오석리, 보령 관창리 등 금강유역 일원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취락에는 몇 기에 불과한 가마가 동시 혹은 시기적으로 축조되는 데 반해, 보령 관창리B 유적에서는 대취락에 걸맞는 대단위 가마군이 확인된다. 가마는 서로 중복되어 시기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 취락 내에서 집단적으로 밀집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田崎 博之의 견해처럼 토기 생산 전용 영역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특히 관창리 B유적은 모든 취락에서 동형의 외반구연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대량생산과 취락 내 분배체계를 상정할 수 있겠다. 이런 견지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① 토기 생산영역은 주거 및 매장영역과 구별되는 독립된 장소에 마련된다.

② 취락 내 주거군과 주거군 사이의 공터에 집단적으로 조성된다.

13) 金賢, 2002, 「大坪 無文土器 窯에 대한 一檢討」, 『晉州 大坪 玉房 1·9地區 無文土器 聚落』, 慶南考古學研究所.

14) 田崎 博之, 2005, 「燒成失敗品을 통해 본 無文土器의 生産形態」,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 ③ 가마군은 주거군이 발달한 능선 하쪽에 위치하며, 바로 동쪽편에 위치하는 후대의 사개들 저수지 수원이 관창리 토기 생산을 활성화했던 원천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④ 가마의 위치로 볼 때 토기 제작 집단은 전문 장인의 자격으로서 가마군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축조된 송국리형주거에서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편의 주거군은 능선 말단부이고 가마군으로 인해 취락의 주요 주거군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토기 제작 집단의 주거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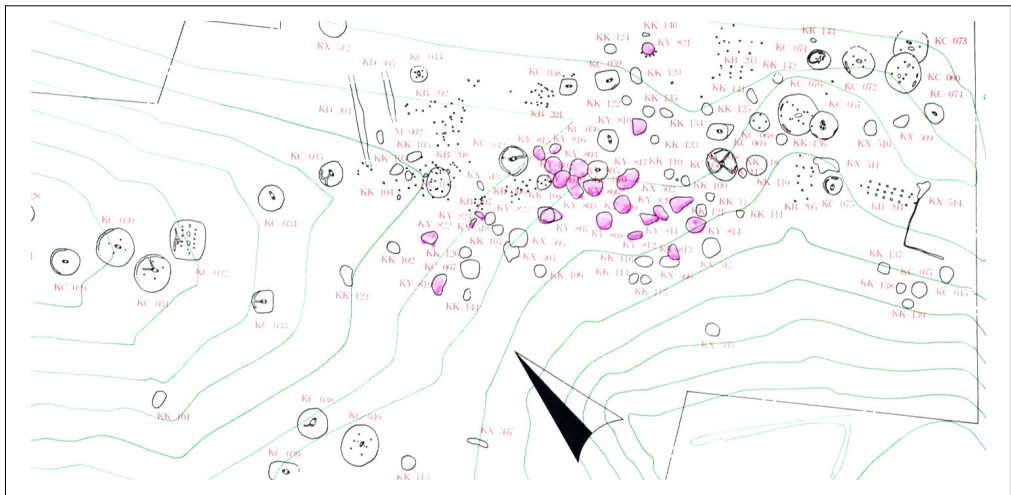


그림 7. 송국리형취락 내 토기 생산영역(보령 관창리B)

### 3) 석기 제작 터 : 석기 생산

최근까지 타원형구덩이=작업공, 송국리형주거=작업장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주민이 석기 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혹은 전문 장인집단이었다는 결론이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송국리형주거는 타원형구덩이가 설치되어 있고, 타원형구덩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결과는 석기 제작과 귀결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결론이 타당하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다.

- ① 대부분의 송국리형주거에서 석기를 제작해서 공급한다면 모든 송국리형취락은 석기 공급처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될 수 있는 수요처는 어디인가?
- ② 타원형구덩이가 없고 중심기둥만 있는 주거(E형)가 수요자가 되는가? 아니면 송국리형주거가 아닌 다른 주거로 구성된 취락(예를 들면 순수 방형·원형 주거, 송국리형문화단계에 해당되는 늦은 시기의 전기 주거)이 수요자인가?
- ③ 타원형구덩이가 존재하는 송국리형 취락이 인근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면 이들은 수요자를 찾아나서야 하는가? 또 동일한 공급자로서 경쟁해야 하는가?

- ④ 석기만을 생산해야 하는 주민들이라면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석기 생산과 농사를 병행할 것인가? 석기제작과 농사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타원형구덩이의 기능이 석기제작용 구덩이(작업공)로만 해석되는 것은 '송국리형취락 구성원 = 석기제작 집단'이라는 등식으로 확대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타원형구덩이 내부와 주변의 정황이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미완성석기, 연석, 지석, 다량의 석재, 돌가루 등이 존재한다고 하여 석기제작 작업공으로 본다는 것은 몇 가지 검증 절차가 빠져 있는 것과 같다. 이들은 단지 '놓여 있는 것일 뿐'이며, 쉽지는 않겠지만 '놓여 있기까지의 정황'이 현장에서 포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대표적인 사례는 진주 대평리에서 확인된 전문 옥 가공 집단의 주거일 것이다.

진주 대평리 유적은 송국리형주거의 특수적 성격, 즉 구조적인 특성이 아니라 주거의 기능과 생산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 유적에서는 석기 제작과 관련된 증거들도 존재하지만 옥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과 분업 체제가 파악된다<sup>15)</sup>. 이러한 측면에서 송국리형취락은 대부분 일상적인 생활 주거로 볼 수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석기 제작 등 전문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주거가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송국리형주거의 타원형구덩이가 갖는 기능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취락 내에서 생산과 분업화, 유통과 소비의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구성원 : 인구

취락의 구성요소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일 것이다. 일차적인 구성단위는 생산과 소비단위로서의 가내집단인 '가족' 이 된다. 가족은 혼인을 통해 형성된 부부와 부부가 낳은 아이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혼인과정 혹은 혼인체제는 취락의 구성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취락 규모와 위계체제의 관련성에 대한 John Bintliff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의 규모가 대략 25명 가량일 때 인간 공동체가 자연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약 150~200명 가량일 때 내적 위계분화가 없는 상태로 원활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며, 이 이상으로 단일 집단의 규모가 확대되면 내적 위계가 형성되거나 집단의 분화가 일어난다고 한다<sup>16)</sup>.

송국리형주거는 전기 단계의 주거와 달리 핵가족화된 가족구성원의 주거로 이해되고 있기

15) 쇼다 신야, 2009,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학연문화사, pp.197~199.

16) 朴淳發, 2003, 『村落의 形成과 發展』, 『강좌 한국고대사』, 제7권 촌락과 도시,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pp.25~26 재인용.

때문에 한 주거에는 대략 2~5명 정도가 생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 세대를 중심으로 건물이 조성된다고 보면 큰 무리는 아닐 것이며, 대부분 10여 기 내외의 주거로 구성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략 50여 명 내외의 구성원이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송국리형문화 단계의 인구 문제는 아직까지 활성화된 분야는 아니다. 충청 지역의 송국리형문화 형성과 관련하여 전기 단계의 세장방형 주거민들의 인구 폭발이 동인이라는 연구<sup>17)</sup>, 금강 중·하류역에 입지했던 일부 송국리형취락에서 빈부차와 위계를 살피는 연구<sup>18)</sup>, 그리고 영남 지역의 청동기시대 인구변화에 대한 연구<sup>19)</sup>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물질적 생산이 증가되면 자연스럽게 인적 생산(혼인과 인구증가)도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비록 적극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송국리형문화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적 생산을 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한 구릉 내에 존재하는 집단은 핵가족을 단위로 하는 세대공동체(확대가족, 결합가족 등)이면서 친족이 중추적인 비율을 점했을 가능성이 높다.

: 핵가족(가구) - 확대가족 · 결합가족(세대공동체) - 친족+외래구성원(취락공동체)

- ② 하나의 취락은 내혼율보다는 외혼율에 의해 구성원을 증원했을 가능성이 있다.

분업화에 의한 계급(계층)의 활성화 및 조직 확립의 측면이라면 내혼율이 대세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송국리형문화 단계를 확고한 계급(계층)화 사회로 설정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된다. 민족지자료 등을 통해 볼 때 족외혼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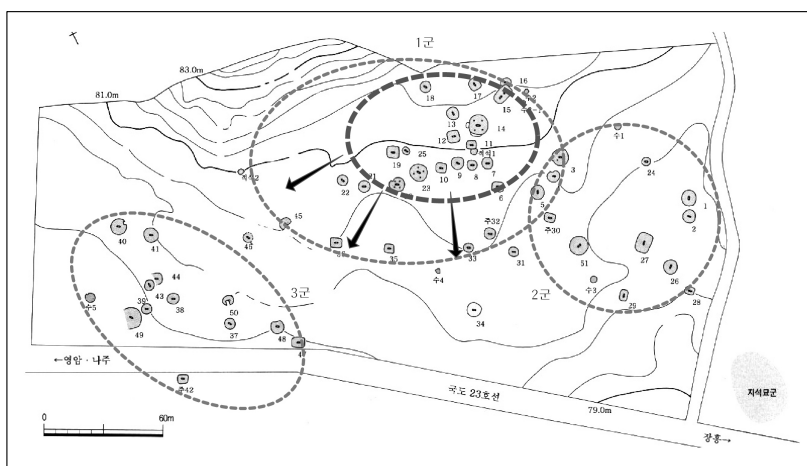


그림 7. 송국리형취락의 주거배치 양상(장흥 신평)

17) 金壯錫,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韓國考古學報』 第51輯.  
 18) 金範哲, 2006, 「錦江 중·하류역 松菊里型 聚落에 대한 家口考古學적 접근-多次元尺度法을 이용한 家口간 貧富差/位階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第51號.  
 19) 金權九, 2003, 『靑銅器時代 嶺南地域의 生業과 社會』,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2. 소비

분업이 발달하지 않고 분배와 교환이 원활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소비유형이 전체 사회 안에서 대체로 균일하다. 이런 사회에서는 잉여생산이 거의 없으므로 부의 축적이 불가능하고 사회의 각 단위간에 경제적 차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층에 따른 소비유형도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sup>20)</sup>.

가족 분화가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송국리형취락은 소집단 체제가 발달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공동의 경제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할지라도 분업화와 교환체계 등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 1) 야외노지

송국리형취락민들의 식문화와 연관되는 것으로서, 주거 내부에서 화식을 통한 흔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야외 노지를 활용한 식문화는 매우 유력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물론 유적에서 조사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야외노지가 지표면이나 얇은 구덩이로 조성된다는 점과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고학 현장은 경작 등으로 인해 삭평되어 왔다는 점에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취락 유적에서 조사되는 수혈유구 가운데 소토덩어리, 토기편, 할석이나 천석 등이 함께 확인되는 구덩이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의례적 해석도 있지만 야외노지로서의 해석도 가능하리라 본다. 야외노지는 개별 주거의 소비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오지의 부족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주거와의 거리 및 출입구와의 관계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지만 발굴조사 시 유구의 존재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주거와는 별도로 넓은 공터에 야외노지가 존재할 수 있다. 이는 광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행사나 의례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용도의 화기 사용처 중 하나였을 것이다. 개별 주거에 근접하여 설치된 야외노지가 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을 위한 소비 단위라면, 개별 주거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공터 등에서 활용된 야외노지는 취락 구성원을 위한 소비단위로 볼 수 있다. 전자의 소비단위는 특정 주거의 소유물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폐쇄적 성격을 지니는 반면, 후자의 소비단위는 특정한 모임을 통해 전 취락민을 하나로 결속하게 하고, 이를 위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원천으로서 개방적

20) 한상복 · 이문용 · 김광억, 2012, 『개정판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59~260.



성격을 지닌다.

## 2) 공터 : 광장

취락 내에 존재하는 공터(광장)는 일반적으로 전체 구성원들간의 존재 인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장소로 기능한다. 특히 취락 구성원들의 특정 행위나 모임에 수반되는 소비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장소로서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기도 하다.

청동기시대 취락 내에 존재하는 광장은 다수의 주거로 밀집되어 있으면서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일정 면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광장은 주거군과 거리를 두고 있는 순수한 공터와는 구별될 수 있으며, 주거군의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환상열을 이루는 취락은 전자 형태의 공터가 만들어지겠지만 열상이나 집중화를 이루는 취락은 주거군과 일정 거리를 두고 마련되는 순수한 공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공터에서의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소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① 취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합, 제의나 축제와 같은 의례 등 군중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리 행위 : 야외노지
- ② 한랭기 또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회합 시 추위를 막거나 불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땀감의 소비



그림 8. 송국리형취락과 광장(광주 수문)

## V. 맺음말

송국리형문화는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중기(또는 후기)를 대표하는 문화유형으로서 기원전 9세기~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는 시기까지 잔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화는 전기 단계와는 전혀 다른 주거의 축조와 가족분화를 특징으로 하며,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취락의 체제를 구축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집단은 장구한 세월 속에서 전통성, 보편성, 과급성이라는 문화적 특성을 갖출 수 있었다.

취락에서 볼 수 있는 생산과 소비는 그 문화의 사회·경제체제를 파악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자 민감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료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토대 속에서 이론적 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데, 1차적인 토대마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 살펴본 송국리형취락의 생산과 소비의 문제는 해결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간략한 문제제기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행간에 사용된 단어나 접근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해석과 자료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參考文獻

발굴조사보고서는 생략함

- 고일홍, 2010,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방식 재조명」, 『韓國上古史學報』 第67號.
- 金範哲, 2006, 「錦江 중·하류역 松菊里型 聚落到 대한 家口考古學적 접근-多次元尺度法을 이용한 家口간 貧富差/位階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報』 第51號.
- 金承玉, 2004, 「龍潭댐 無文土器時代 文化的 社會組織과 變遷過程」, 『湖南考古學報』 19, 湖南考古學會.
- 金壯錫, 2003, 「충청지역 송국리유형 형성과정」, 『韓國考古學報』 第51輯.
- 金 賢, 2002, 「大坪 無文土器 窯에 대한 一檢討」, 『晉州 大坪 玉房 1·9地區 無文土器 聚落』, 慶南考古學研究所.
- 로저키징 著·전경수 譯, 1990, 『現代文化人類學』, 현음사.
- 朴淳發, 2003, 「村落의 形成과 發展」, 『강좌 한국고대사』, 제7권 촌락과 도시,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쇼다 신야, 2009,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학연문화사
- 安在晔, 2004, 「中西部地域 無文土器時代 中期聚落의 一樣相」, 『韓國上古史學報』 第43號.
- 윤호필, 2012, 「경작유구를 통해 본 경지이용방식의 변천 연구」, 『농업의 고고학』, 제36회 한국고

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이건무, 2006, 「松菊里類型에 대하여」, 『금강, 송국리형문화의 형성과 발전』, 호서·호남고고학회  
합동 학술대회.

李宗哲, 2002, 「松菊里型 住居址의 構造變化에 대한 試論」, 『湖南考古學報』 第16輯.

\_\_\_\_\_, 2003, 「支石墓 上石 運搬에 대한 試論」, 『韓國考古學報』 50輯, 韓國考古學會.

\_\_\_\_\_, 2006, 「松菊里型住居址 研究의 爭點과 課題」, 『송국리유적 조사 30년, 그 의의와 성과』

\_\_\_\_\_, 2012, 「탐진강 유역 송국리형주거의 특징과 편년」, 『湖南考古學會』 42號.

田崎 博之, 2005, 「燒成失敗品을 통해 본 無文土器의 生産形態」,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고려대학교 고고환경연구소.

한상복·이문웅·김광영, 2012, 『개정판 문화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